

다산포럼

중국 인문기행에서 만난 두 인물



김 태 희  
다산연구소장

지난주 소흥(紹興·사오싱) 일대를 다녀왔다. 송재소 교수가 이끈 다산연구소의 중국 인문기행이었다. 중국 절강성(浙江省·저장성)에 속한 소흥은 2500년 전 춘추시대 월(越)나라의 근거지로, 유명한 와신상담(臥薪嘗膽)의 배경이 된 지역이다. 이곳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많은 역사인물을 배출했다. 미인 서시(西施)와 하직장(賀知章)·육유(陸游)·서위(徐渭)·서석린(徐錫麟·쉬시린)·채원배(蔡元培·차이위엔페이)·노신(魯迅·루쉰) 등이 이곳에서 태어났다. 이곳에서 자라거나 활동한 사람으로는 범려·왕희지(王羲之)·추근(秋瑾·치우진)·주은래(周恩來·주언라이) 등이 있다. 그 가운데 특히 두 인물이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바로 범려와 채원배였다.

월왕 구천(句踐)은 무리하게 오나라를 공격하다 패했다. 구천은 마지막에 회계산에서 포위되어 항복했다. 월나라는 20년을 도모하여 마침내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회계산의 치욕을 갚았다. 이렇게 구천이 재기하는 데는 함께 고초를 겪으며 보좌한 범려의 도움이 컸다. 나아가 구천은 중원을 호령하는 패자(覇者)가 되었고, 범려는 상장군이 되었다.

그런데 범려는 보상과 지위에 안주하지 않았다. 본디 초나라 출신인 그는 구천의 만류를 뿌리치고 월나라를 떠났다. 제나라로 가서 ‘치이자피’(雉夷子皮)로 이름을 바꾸고, 바닷가에서 농사를 지어 많은 재산을 모았다. 제나라 사람들이 그의 현명함을 알고서 상국(相國)으로 삼았다. 범려는 존귀한 이름을 오래 갖는 것이 상스럽지 못하다 여겨 재산을 나눠주고 또 떠났다. 도(陶) 땅에 이르자 천하의 교역 중심지라 여겨 이곳에 머물렀다. ‘도주공’(陶朱公)으로 이름을 바꾼 범려는 상업에 수완을 발휘하여 또 많은 재산을 모았다.

사마천은 ‘월왕구천세가’와 ‘화식열전’에서 범려에 관한 얘기를 상당 부분 할애했다. 세 차례 떠나면서도 머문 곳마다 공적을 쌓은 인물로 높이 평가했다. 범려의 현명한 처신은 그와 함께 구천을 도왔던

문종과 비교되었다. 제나라로 떠난 범려가 문종에게 편지를 보냈다. “새가 모두 사라지면 좋은 활은 거두어지고, 토끼가 다 죽으면 사냥개는 살아지는 법이요. 구천의 사람이 환난은 함께해도 즐거움은 함께할 수 없거늘 어찌 그대는 떠나지 않소?” 범려의 격정대로 문종은 말로가 좋지 않았다.

또 한 인물은 채원배(1868~1940)였다. 1868년 절강성 소흥에서 태어난 그는 청초 말 과거에 합격하여 한림원의 관직에 있었다. 그러나 관직을 그만두고 교육과 혁명 활동에 종사했으며, 유럽 유학을 다녀온 후 베이징대학 학장(총장)을 맡아 대학을 번모시켰다.

그는 베이징대학 교수를 모았는데, 실력을 위주로 하여 학력, 연령, 정치적 성향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때 진독수(陳獨秀·천두수), 호적(胡適·후스), 이대교(李大鈞·리다자오), 노신(魯迅·루쉰) 등 새로운 사상을 지닌 교수들이 베이징대학에 들어왔고, 베이징대학은 반봉건 계몽운동인 신문화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관리가 되어 재산이나 모으려던 학생들의 의식도 일신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구학(求學)을 제일로 내세웠다. 다만 학생들의 구국(救國) 활동은 용인했다. 1919년 학생들은 서구 열강과 일본의 침

략에 분노하고 군벌정부의 매국적 행위를 규탄하여 일어섰는데, 바로 5·4운동이다. 군벌정부가 “베이징 학생들의 행동은 베이징 대학이 책임져야 하고, 베이징대학의 죄는 채원배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는데, 여기에서 채원배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그를 ‘5·4운동의 아버지’라 부르는 까닭이기도 하다.

능력도 없이 지위를 바라고, 책임감도 없이 권력의 단맛에 취하기 쉬운 게 세태다. 춘추시대 마지막 패권국을 만든 실력과 공적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명성에 빠지지 않았던 범려의 지혜로움을 새겨 본다. 100년 전 우리 학생과 민초들은, 백성을 핏줄인 왕국의 위정자를 대신하여, 민국의 주인으로 나서 독립국임과 자국민임을 온몸으로 선언했다. 같은 시기 새로운 중국사회의 모색과 건설을 위해 인재를 모으고 지식인의 사명을 다했던 채원배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부지런히 송재소 교수를 따라다녔던 중국 인문기행. 소흥주를 기울인 동행들의 저녁 시간에는 우리 역사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되었다. 바다를 건너 제주와 광주, 바로 위를 날아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필자는 생각했다. 역사에서 긴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다.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社說

한심스러운 보훈처 간부의 성희롱 발언

5·18 광주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로 큰 파장을 불러왔던 국가보훈처. 이번에는 그 국가보훈처의 직원이 물의를 일으켰다. 그것도 경건해야 할 5·18 기념식장에서 다른 것도 아닌 성희롱 발언으로.

광주지방보훈청 소속 한 간부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인데, 전말은 이렇다. 지난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장. 오월 어머니집 관장인 노 모 씨(62)는 4·3 항쟁 희생자유원당당관도 사과를 요구하다가 기념식이 시작되자 대응을 자제했다고 한다.

이에 오월 어머니집은 어제 기자회견

을 갖고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간부는 “행사 시작이 임박한 시점에서 관장에게 ‘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안 되면 저희 무릎이라도 내어 드려야죠’라고 말했다”며 “관장이 언짢아셔서 바로 사과했다”라고 해명했다.

경위가 어떻든 이는 5월 영령을 기리는 기념식을 주관하는 공직자로서 잘못된 언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시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발로 분위기가 격양돼 있었는데 좌석배치를 요청하는 여성 관장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등 50여 명이 뒷자리에 배치된 것을 보고 ‘앞쪽으로 자리를 바꿔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문제의 그 보훈처 간부는 ‘자리가 없는데 제 무릎이라도 앉으라’며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여성인 노 관장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으며 현장에서 목격한 광주시 인권담당관도 사과를 요구하다가 기념식이 시작되자 대응을 자제했다고 한다.

이제 오월 어머니집은 어제 기자회견

지역신문발전기금 늘려도 모자랄 판에

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 움직임에 대해 각계의 반발이 거세다. 언론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기금 폐지 철회를 잇달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는 어제 성명을 내고 “정부가 기금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여론 다원화 ▲국민대통합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 등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신협은 또 “지난 연말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역신문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해 지역신문발전기금 특별법을 6년 연장했는데도, 정부가 ‘효율성’의 잣대로만 평가해 기금을 일방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특별법의 입법 정신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신협은 광주일보,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 등 전국 8개 지역의 대표인론사 모임이다.

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도 어제 성명을 내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놓고 지역신문을, 지역여론을 몽개어 없애 버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연맹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법에 규정한 기구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폐합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비난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특별법은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난 2004년 지역언론 종사자들은 물론 여야 합의로 제정됐으며, 지난해 말 국회에서 2022년 말까지 6년 연장특별법을 6년 연장했는데도, 특별법화 속에서도 지역 신문들이 각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었던 것은 부족하나마 이 기금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 방침은 지역여론을 무시하는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재부는 이제라도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 통합 방침을 철회하고, 오히려 이 기금을 최소 2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NGO 칼럼

4·16과 5·18, 시민의 계절에 그려보는 꿈



이 민 현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 회원

이 아니라 180석을 넘기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더 힘을 잃을 것이고, 선제 인양도 적당히 은폐하고 마무리 지을 테고, 시민들의 절망과 무력감은 날로 커지면서 하나라도 잘 살아보자고 자포자기하거나 각자다생으로 헬조선을 떠날 공리만 가득해지지 않을까? 온갖 걱정거리로 머리도 가슴도 무거운 봄이었다. 봄바람은 살랑거리지만 마음은 차디찬 맹골수도 앞 바다를 표류하고 있었다.

4월13일, 갑자기 봄바람이 태풍으로 불어왔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아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결과였다. 결과의 좋고 나쁨에 대한 평가를 떠나 가히 민심의 태풍이라 할만 했다.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지만 민심이 그렇게 절망적인 게 아닐까?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여와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오만하고 노력하지 않는 정치체력이 무섭게 냉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려면 역사적 사건들을 잘 종결짓고 넘어가야 한다. 사건

들이 종결되지 않고 켜켜이 쌓여 있으면 그 무게에 현실이 짓눌리고 만다. 사건마다 특수성은 있었지만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가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 등을 손보고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겐 사건의 교훈을 분명히 전달하는 과정이 잘 진행되어야 우리는 그 사건을 잘 종결지을 수 있다.

불행히도 일제 36년과 5·18, 세월호는 여전히 종결되지 않고 진행중이다. 민주주의를 원치 않는 독재 세력들은 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시민들이 무기력과 절망에 빠지기를, 서로 손잡는 연대를 포기하고 각자 살기 바빠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기를 원한다. 4·13 총선 이전의 분위기가 딱 그러했는데, 다행히 총선이 끝나고 사람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뭔가 해보자는 절기가 살아남을 느낀다.

많은 일들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대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서 시작하고 그 일로 마무리된다.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일, 5·18의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

고 역사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을 폐기하고 역사의 정의를 세워가는 모든 일들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과 연결되어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권력을 갖는 시스템이다. 소수 엘리트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국민 모두가 권력을 손으로 잡을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이웃과 만나 서로에게 필요한 정책을 토론하고, 그 정책을 현실로 만들 정치적 통로가 시민들 가까이에 있어야 하고, 시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정치인은 늘 바꿀 수 있어야 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게 온라인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가 확장되어야 한다.

다행히 총선의 여운이 식기 전에 여러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모여 시민정치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고,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구경꾼이 아닌 주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민정치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시민의 계절에 뿌려진 이 꿈이 어떻게 결실을 맺어갈지 기대가 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으면 한다. 결국 참여가 시민의 힘이다.

기 고

‘행정복지센터’에 거는 기대



봉 필 호  
광주시 서구 복지정책과장

회복지서비스 신청·접수처리 만으로도 하루가 분주하다. 복지사업이나 예산은 크게 늘었으나 갈때기의 좁은 하단처럼 수급자에게는 서비스가 만족할 만큼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사회복지사 등 현장 담당 인력의 뒷받침 부족을 꼽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대부분 인 상황에서 복지수요 대상자를 심층 상담하거나 위기 요인을 확인하기만 무척이나 힘든 일 일뿐 아니라, 수요자가 직접 찾아오지 않을 경우 발굴 조차 어렵게 현실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 각종 복지서비스가 수요자 입장에서 이용하기 쉽도록 통합 운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서비스 자체가 공급자 위주로 쪼개져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민간부문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가 중복, 누락되는 등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된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맞춤형 복지에 역점을 두고 읍면동 현장에서 맞춤형 복지를 가시화할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두 주자 30개 시군’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우리 서구(금호1동) 역시 전국 30개 시군구(33개 읍면동) 시범 지역으로 당당히 선정됐다.

‘복지허브화’란 지역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복지공무원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상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기존의 주민센터가 찾아오는 민원인의 민원만을 처리했다면 앞으로는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하나 하나 방문·상담하고, 개인 또는 세대별 사정에 맞는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시범지역 선정에 따라 우리 서구는 금호1동에 지난달 ‘맞춤형 복지팀’을 새롭게 신설하고, 팀장을 비롯한 4명의 공무원과 사례관리사 등 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했다.

‘맞춤형 복지팀’은 앞으로 복지 통장 및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등과 연계하여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주민들을 발굴, 지원하게 된다. 특히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기관 등 민간자원과도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호1동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까지 우리 서구는 복지수요가 많은 상무2동을 비

롯한 6개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2018년까지 서구 18개 전 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여러 언론 보도에 나온 것 처럼 지난해 우리 구는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부문 대상’ 등 지역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 주관한 각종 평가에서 4개 부문이나 수상하는 등 ‘베스트 오브 베스트 지자체’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는 서구 민간 협력을 통해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우리동네 수호천사’, 서구민 한가족되기 나눔운동, 희망플러스 12대 사업, 시민생활도우미제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채로운 복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이번 금호1동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복지허브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된다면 앞으로 우리 서구는 맞춤형 복지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복지 허브’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첫 발을 내딛고 힘차게 출발한 ‘금호1동 행정복지센터’가 사회안전망을 더욱 넓고 촘촘히 하는 진정한 복지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無 等 鼓

“조선의 유행가란 이난영으로부터 출발했고, 이난영으로 하여금 존재한 대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열여섯 살부터 지금까지 부른 노래도 수없지만 걸작도 많다.”

동아일보 1940년 3월 31일자에 실린 가수 이난영(1916~1965)을 소개하는 기사다. 목포에서 태어난 그녀는 막간(幕間) 가수로 처음 무대에 오른 뒤 49살에 타계할 때까지 나라 잃은 슬픔을 달래준 ‘목포의 눈물’을 비롯해 ‘목포는 항구다’, ‘다방의 푸른 꿈’, ‘해조곡’ 등 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삼학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부두에 새악씨 이용졌은 옷자락/ 이별의 눈물인가 목포의 설움.” 특히 1935년 취임한 ‘목포의 눈물’(문일석 작사·손목인 작곡)은 일제강점기 민족의 한(恨)과 저항을 담아낸 불후(不朽)의 명곡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은 시인은 연작시 ‘만인보’에서 ‘목포의 눈물은 겨레발이 모두의 노래’라고 했다.

그녀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보컬 그룹(저고리 sister)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신민요와 가요 또는 재즈 등 다양

한 장르를 넘나들며 한국에만 머물지 않고 일본·중국·미국 등지에서 활동한 국제적인 스타였다. 더욱이 한국전쟁 때 남편(작곡가 김해송)이 인민군에게 끌려가 생사를 알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4남3녀)를 음악인으로 키워 낸 ‘역척’ 워킹 맘(Working Mom)이었다.

오는 6월 6일은 가수 이난영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에 맞춰 그녀의 고향인 목포에서 토크 콘서트와 렉처(Lecture) 콘서트, 시민 대토론회, 기획 전시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김 sister즈’ 멤버로 활동한 딸 김숙자 씨가 목포를 방문해 후배 가수들과 공연무대를 열기도 한다. 이난영의 비음 섞인 특유의 음식과 장밋빛 모창(模唱)하는 경연대회도 준비돼 있다.

이번 주말에 짬을 내 목포 유달산 기슭의 ‘목포의 눈물’ 노래비와 양동생가터, 그녀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대삼학도 난영공원을 찾아 그녀의 음악 인생을 반추하고 싶다. 그녀의 노래는 많은 대중가요 팬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다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6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